

베트남 인프라협력센터

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(3월 1~2주)

□ 정책 및 시장 동향

① 베트남 3월 경제 동향

- '25년 1~2월 베트남 FDI(외국인직접투자) 유치액 USD 69억, 집행액 USD 29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.5%, 5.4% 증가
 - 전반적인 투자 유치액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, 신규투자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기존 프로젝트 추가투자과 주식매입 등이 크게 늘면서 신규투자 감소 영향을 상쇄
 - 한국은 1~2월 USD 15억 이상 투자하며 최대 투자국 지위 유지(전년 동기 대비 5배 증가 및 베트남 전체 FDI의 22% 차지)
- '25년 1~2월 베트남 교역액 USD 1,270.7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% 증가
 - 수출은 USD 642.7억, 수입은 USD 628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.4%, 15.9% 증가했으며, 무역흑자는 USD 14.7억 기록
 - 대미 무역흑자 USD 17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.3% 증가
- '25년 2월 베트남 제조업 침체 국면 장기화
 - S&P Global의 2월 베트남 제조업 PMI(구매관리자지수) 보고서에 따르면, 2월 PMI는 49.2으로 전월 대비 0.3p 상승했으나, 3달 연속 기준치 미달
 - PMI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기업 구매담당자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업계동향 지표로 50 미만은 경기 위축, 50 이상은 경기 확장을 의미
 - 아세안 7개국 평균 제조업 PMI는 51.5으로 지난 7개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베트남은 눈에 띄는 반등을 이뤄내지 못하며 전체 7개국 중 6위 기록
- '25년 1~2월 베트남 세수 USD 196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.7% 증가

② 베트남 정부 동향 및 정책

- 베트남, 경제 불필요 규제 최소 30% 축소 추진
 - 또 럽 당서기장은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혁과 투자환경 개선을 촉구
 -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8% 달성을 위해 행정부문에서 행정절차 소요시간 최소 30% 단축, 사업비용 및 비공식 경비 최소 30% 절감, 특히 제도 부문에서는 투자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불필요한 사업 요건을 최소 30% 이상 제거한다는 방침
 - 당서기장은 신기술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, 경제 및 기술특구에 대한 특별 세제혜택, 이들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 제도 마련, 국제금융센터에서의 개방형 금융정책 시행과 글로벌 물류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면세항만(duty-free ports) 모델 연구, 인재유치와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우수공무원 포상 특별정책 마련, 국가투자원스톱포털 개설 등을 정부에 지시
- 동나이성, 자유무역지구 설립 추진
 - 동나이성은 최근 자유무역지구 설립을 목표로 한 컨퍼런스를 개최했으며,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동나이성 자유무역지구의 이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출 중심 *8대 핵심 산업·서비스를 제안
 - 호치민시와 접한 동나이성은 전체 산업단지 37개(32개 운영)를 보유한 남부 산업중심지 중 하나로 항공경제, 첨단산업 물류 및 항공관련 지원산업의 중심지로서 잠재력이 높은 지역
 - 동나이성은 자유무역지구에 대한 투자가 룡탄신공항과 프억안항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, 멀티모달 연결성, 화물운송 용량 증가, 물류비 절감, 아세안 물류허브 개발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회로 판단
- * 8대 핵심산업·서비스는 제약 및 화학 제조, 자동차 및 항공기 부품 생산·조립, 산업 및 전자제품, 반도체, 인공지능(AI) 및 사물인터넷(IoT) 제품, 수출용 고품질 농산물 가공 항공기 유지관리, 전자상거래 및 특송서비스 등

- 베트남, FDI 효율성 평가 42개 기준 마련
 - 팜 민 쩌 총리는 베트남에 투자중인 FDI(외국인직접투자) 기업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발표(315/QD-TTg)
 - FDI 효율성 평가 기준은, 경제지표 29개, 사회지표 8개, 환경지표 5개 등 모두 4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정부는 이를 통해 자본과 성장률, 사업성과, 기술 및 세수기여, 파급효과, 국내기업과의 연계 수준 등의 요소를 기반으로 FDI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는 계획

- 팜 민 쩌 총리, 한국기업 대표단과 간담회
 - 팜 민 쩌 총리는 삼성과 LG, SK, 현대탄퐁(HTC), 효성, 롯데, CJ 등 현지진출 주요 35개사와 간담회를 열어 아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, 향후 정책방향과 협력강화 방안 논의
 - 총리는 한국기업에 반도체와 인공지능(AI),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 요청
 - 이번 간담회는 지난 일주일간 중국과 미국, 일본, 유럽연합(EU)에 이은 5번째 외국기업 대표단 간담회로, 올해 8% 성장 목표를 세운 베트남 정부가 지속적인 FDI(외국인직접투자) 유치를 통해 성장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으로 보임

- 베트남, 전국 공립학교(유치원~고등학교) 무상교육 실시
 -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국 모든 공립학교 재학생에 대한 등록금(학비) 면제를 골자로 한 결의안 의결
 - 오는 9월 시작될 2025~2026학년도 새학기부터 적용 예정이며, 이번 결정으로 수혜를 누릴 공립학교 재학생은 유치원생 480만명, 초등학생 890만명, 중학생 650만명, 고등학생 300만명 등 총 2,320만명
 - 사립 또는 준사립학교의 경우 공립학교 등록금에 준하는 비용이 지원돼 등록금 차액만 부담

3 베트남 기타 동향

- 베트남, 암호화폐 거래소 시범운영 추진
 - 재정부는 정부 기자회견에서 총리 지시에 따라 디지털 통화에 대한 정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, 디지털 통화에 대한 시범적 거래 허용이 포함돼있다고 발표
 - 3월 중 디지털 통화 및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범 운영을 골자로 한 결의안이 발표되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이러한 유형의 자산을 거래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장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
 - 거래소 운영 주체와 관련, 정부는 국민과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허가한 법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거래소 운영을 허용할 계획
 - 또한 베트남 기업이 가상자산을 발행해 재정 자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계획
- 푸꾸옥 공항, '27년 APEC 정상회의 대비 확장 추진
 - 베트남민간항공국(CAAV)이 최근 교통운송부에 제출한 공항확장을 골자로 한 '50년 목표, '21~'30년 푸꾸옥국제공항 기본계획에 따르면 공항 확장사업은 '30년까지 1단계 사업과 이후 '50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
 - 1단계 사업에서 푸꾸옥 공항은 ICAO 4E급 민간공항 및 2급 군사 공항으로 확장 예정이며, 완공 시 연간 여객수용 규모는 현재의 400만명에서 '30년 1,000만명(화물 2.5만톤)으로 2.5배 증가
 - 2단계 사업에서 제2터미널 및 제3터미널(국제선) 신설 예정
- LS에코에너지, 베트남 해저케이블사업 강화 추진
 -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 국영에너지기업 페트로 베트남의 자회사 PTSC와 협력해 베트남 및 동남아 해저케이블 사업 강화 추진
 - PTSC는 베트남 해상풍력발전 단지에서 생산된 친환경 전력을 해저 케이블을 통해 싱가포르로 공급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며, LS에코에너지는 해당 프로젝트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 중

□ 일반 프로젝트 동향

① (베트남) 호치민시, 메트로 2호선 건설 추진

< 사업 개요 >

- (발 주 처) 호치민시 인민위원회
- (사 업 비) USD 18.8억 (VND 48조)
- (사업내용) 총 연장 11.3km(지하 9.1km), 10개 역사(지하 9개), 1개 차량기지
- (추진현황) '25.9. 타당성조사 승인 예정 / '25.12. 착공 / '30. 개통 목표

- (주요사항) 시내 중심부인 1군 벤탄역부터 3군, 10군, 편빈군, 편푸군을 거쳐 외곽지역인 12군 탐르영역까지 연결하며, 개통 시 서부지역부터 도심을 거쳐 동부지역까지 이어지는 도시철도망 형성
 - '10년 투자정책 승인 당시 계획은 '26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부지 정리 절차 지연 및 투자재원이 ODA 차관에서 국가예산으로 조정됨에 따라 완공기한이 계속 연기
 - 호치민시는 향후 도시철도 경로 설계에 있어 토지 보상비용 절감과 공기단축, 대중교통지향형개발(TOD) 및 지하공간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지하구간을 확대할 계획

② (베트남) 팜빈성, 동허이 공항 확장(2터미널 건설) 추진

< 사업 개요 >

- (발 주 처) 팜빈성 인민위원회
- (사 업 비) USD 7천만 (VND 1.8조)
- (사업내용) 연간 여객수용 50→300만명
- (추진현황) '25.2Q 착공 예정 / '26.4Q. 완공 목표

- (주요사항) '24년 8월부터 주기장 확장사업이 진행중인 동허이 공항은 오는 4월 30일 이전에 주기장 확장사업을 모두 마무리한 뒤, 곧바로 제2여객터미널 착공 예정